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보도자료 2022. 5. 19.(목)

전문공보관 이혜은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제 목

허위 특허 등록과 소송을 통해 경쟁시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A제약회사 등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서울중앙지검(공정거래조사부장 고진원)은 오늘(5. 19.) A제약회사와 A(지주회사)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, 제제(製劑)팀장 甲(現 A그룹계열사 대표), 제제팀 연구원 乙, IP(Intellectual Property, 지식재산권) 팀장 丙, IP팀 팀원 丁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불구속기소하였음
 - ① A제약회사와 A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*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(항궤양제) 특허를 등록한 후 '16. 2.경 복제약을 생산하는 경쟁사 B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, 그때부터 '17. 10.경까지 위 소송 사실을 병·의원 등에 대한 마케팅에 활용하였고, ② 甲, 乙, 丙, 丁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등록하는 데 가담하였음
 - *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(약물이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)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
-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하고 자료를
 삭제한 신제품센터장 戊를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죄로 불구속
 기소하였음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주식회사 A제약, 주식회사 A(지주회사), 甲(前 제제팀장, 現 A그룹 계열 회사 대표이사), 乙(제제팀 연구원), 丙(前 IP팀장), 丁(前 IP팀 팀원), 戊 (現 신제품센터장)

○ 공소사실 요지

- [甲, 乙, 丙, 丁] '15. 1.경 공모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허심사관을 속여 '16. 1.경 특허등록되게 함 [위계공무집행방해]
 - ※ 실제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1회 성공하였으나, 데이터를 조작·가공해 3회 성공한 것처럼 특허명세서에 거짓 기재
- [A제약 및 A] '16. 2.경 위와 같이 등록된 거짓 특허를 토대로 경쟁사 B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다음 '17. 10.경까지 소제기 사실을 병·의원 등에 대한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 [공정거래법위반]
- [戊] '22. 3. 11.경 검찰의 압수수색 착수 소식을 듣고 제제팀 연구원 乙의 노트북을 옆 회의실로 옮겨 놓고, 자신의 노트북에 있던 자료를 삭제 [증거은닉 및 증거인멸]

Ⅱ 주요 수사 경과

O '21. 3. 공정거래위원회, A제약회사 및 A(지주회사) 고발

※ 과징금: A제약회사 21억 4,600만 원 / A 1억 5,100만 원

O '21. 5. 특허청, A제약회사 수사의뢰(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등록)

- O '22. 3.~4. A제약회사, A 및 甲, 乙, 丙, 丁 등 압수수색(1차, 2차)
- O '21. 9.~'22. 5. 참고인들 및 피의자들 조사

Ⅲ 참고 사항

-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특허를 토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**공정거래법상 불공정** 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임
 - ※ A제약회사는 경쟁사 B 대비 매출액 약 7배 규모('21. 기준)의 제약회사임
-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인만을 고발하였으나, 검찰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의 수단이 된 위계공무집행방해(데이터를 조작해 특허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) 혐의 관련자들을 확인하여 기소함
- O 한편, 검찰 수사를 통해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제제팀, IP팀이 모두 관여된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함
- 앞으로도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 □